



평협소식

서울시 종로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 777 2013 / 757 7851 FAX 02 778 7427

<http://www.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발행일 : 2009. 1. 5 발행인 : 한홍순

신년 인사

저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 늘 관심을 갖고 아낌 없는 사랑과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새해에도 하느님의 은총 풍성히 내리시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 이루시기 기원합니다.

새해는 언제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뿌려 주시는 새로운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한 해 동안 잘 가꾸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 사는 세상 사람이요 세상 안에 사는 교회의 사람인 우리 평신도는 교회와 세상에서 하느님 뜻에 맞게 살아나가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물질주의라는 모래 위에 지어진 집, 곧 세계 경제가 덧없이 무너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삶의 터전을 단단한 바위, 곧 하느님의 말씀 위에 세우도록 하는 일에 투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평신도들이 자신의 사명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저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올 한 해도 이 땅의 평신도들이 이러한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실천하여 이웃과 힘을 합쳐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하느님과 함께 걷도록”(마가 6, 8 참조) 하는 일에 힘을 보태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을 효과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식 전달에 그치는 교육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르침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평신도 교육, 특히 사회교리교육을 중점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가정 성화와 문화의 복음화를 위한 노력도 계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교류를 강화하며 평신도 차원에서 한국 교회가 아시아와 세계 교회에 이바지하는 일에도 힘쓸 것입니다. 새로운 평신도 사도직 단체를 개발하고 육성하는 일을 비롯하여 평신도 사도직 활동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앞으로 나아가야 할 좌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현할 길도 모색할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나라 안팎으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하느님 뜻에 맞게 극복하며 희망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이 모든 일을 제대로 이루어 이 땅의 평신도들이 자신의 사도직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느님과 성모님과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한홍순



싣는 순서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
▣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7
>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9
>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0
>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0
>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1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1
▣ 한국평협 회원 단체	
>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14
> 한국가톨릭 간호사협회	14
> 한국가톨릭 나사업연합회	15
> 한국가톨릭 의료협회	15
> 한국가톨릭 언론인협의회	17
> 매리지 앤카운터 한국협의회	17
▣ 좋은 영화보기	19
▣ 교황님 말씀	20
▣ 제 12차 주교 시노드	21
▣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 23차 총회	25



알 림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009년도 제42회 정기총회가 오는 2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열립니다.



세계가톨릭여성연합회 아시아 · 태평양지역 총회와의 만남 가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담당 민병덕 신부)는 지난 10월 28일 저녁 로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세계 여성연합회 아시아 태평양지역 회원들을 초청, 만찬을 가졌다.

세계가톨릭여성연합회 Karen M. Hurley 회장, Gillian Mary Badcock 사무총장, 오덕주 세계가톨릭여성연합회 아시아 · 태평양지역 회장, 권경수 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 회장과 아시아 태평양지역 9개 나라에서 온 여성연합회 대표들과 우리나라 각 교구 여성연합회 대표들이 함께한 가운데 한국평협 회장단과 친교를 나누며 세계 여성들의 활동을 통해 평화를 일구어 낼 수 있다는 데에 마음을 모았다.

세계가톨릭여성연합회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총회는 지난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예장동 국제유스호스텔에서 ‘평화를 일구는 여성–믿음과 행동 안에 일치하며’를 주제로 아 · 태지역 12개 회원국이 참가하여 실시했다. 아래 글은 평협과 만남의 자리에서 한홍순 회장이 한 인사말 전문이다.

한홍순 회장의 인사말

친애하는 그리스도안의 자매, 형제 여러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를 대신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매우 조촐한 아가페 자리에 참석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제 동료들과 저는 아시아 교회의 여성 평신도 지도자들이신 여러분과 함께 자리하게 된 것을 매우 커다란 특恩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일구는 여성–믿음과 행동 안에 일치하며”라는 주제로 이 며칠 동안 서울에서 세계가톨릭 여성연합회 아시아 · 태평양 대회를 성공적으로 갖고 계신데 대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토의하고 계신 문제들은 아시아에서 매우 적절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국가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 정의가 매우 심각하게 침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 없이는 평화가 없고 사랑 없이는 정의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정의의 결과는 평화가 됩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 참조) 그러므로 평화를 원한다면 정의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라는 확신을 갖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라는 사명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의 사명과 상황에서의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세계 주교 시노드에 3주간 동안 참석하고 바로 어제 로마에서 귀국했습니다.

우리 교황 성하께서는 개막 연설에서 우리는 세계 금융 위기에서 모래 위에, 즉 물질 위에, 성공 위에, 겉모습 위에 지어진 세계의 현실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말씀만이 모든 현실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하늘처럼, 아니 하늘보다 더 안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



로 현실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오직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유일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은 다른 모든 것과는 달리 영원한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주의자가 되고자 한다면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주의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합당한 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시아는 지금 바로 여기서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자매님들을, 믿음과 행동 안에

일치하여 있는 여성과 남성, 우리 모두를 믿고 계십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보다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복음화의 효과적인 구성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의 대회가 진정으로 생활로 실천되는 현재를 통하여 그리고 진정한 정의를 촉진하기 위한 정직하고 인내심 깊은 노력을 통해 아시아의 여성과 남성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 10. 28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한홍순

제3회 우리성기 노랫말 공모 최우수상에 ‘주님 말씀하셨네’ 선정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제3회 우리성기 노랫말 공모를 통해 응모한 52편의 작품 가운데 6편의 우수한 노랫말을 선정하고, 그 시상식을 12월 4일, 명동성당 소성당에서 가졌다.

이번 공모에서는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주님 말씀 하셨네’ (김미희 세실리아, 수원교구 오산본당)가 선정됐고, 우수상으로는 ‘소록도 친사’ (김종철 요셉, 서울대교구 가양동본당)와 ‘주님이 말씀 하시네’ (윤영기 루카, 수원교구 별양동본당)가 각각 뽑혔다. 장려상에는 △ ‘아가 별’ (이경열 라파엘, 서울대교구 대방동본당) △ ‘마음’ (박혜현 로사리아, 서울대교구 성산2동본당) △ ‘나 어둠 속을 헤맬 때’ (심옥례 가타리나, 서울대교구 고덕동본당) 등 3편이 선정됐다.

심사는 심재기 바오로(국어학자), 김형영 스테파노(시인), 정호승 프란치스코(시인)씨 등이 맡았고 상금은 최우수상 100만 원, 우수상 각 50만 원, 장려상 30만 원이다.

한홍순 회장은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 성가들이 많이 만들어져 아름답게 주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공모의 목적”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한 작품이 많이 발굴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인사했고, 시상을 맡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평신도사



도직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주교는 축사를 통해 “새로운 곡이 탄생할 때마다 마치 새로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처럼 기쁘다”면서 “시편을 노래한 다윗과 같이 더 많은 신자들이 희망과 슬픔을 주님과 함께 나누며 풍성한 신앙과 활기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심사위원 김형영 시인은 격려사를 통해 “시는 사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려고 숨기고, 감추는 작업을 하게 되지만 노랫말, 특히 성가는 기도하는 마음을 다윗과 같이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상자에 대한 격려에 덧붙여 노랫말 창작을 할 때 고려할 점에 대해 조언했다.

이번에 뽑힌 작품들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우리성가 작곡공모’를 통해 곡으로 만들어지며, 만들어진 곡 중 선정된 작품들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평신도주일 기념 제5회 서울대교구 성가합창제(명동대성당)를 통해 연주, 보급된다. 한국평협은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와 작곡공모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제4차 상임위원회 서울에서 가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꾸르실료회관에서 제4차 상임위원회를 갖고 40주년을 맞은 평협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더 나은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첫날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와 함께한 ‘한국천주교 신자교육 실태조사’의 연구보고회에서 정찬남, 이상우, 변진홍 연구위원이 각각 지난해 사회사도직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참가자들은 신자교육이 더 체계적이고 발전적으로 실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편람의 제작이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했다.

2009년도 상임위원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 ▲ 4월: 마산 ▲ 7월: 청주
- ▲ 9월: 제주 ▲ 11월: 서울





2008 사회포럼 '기업경영과 사회적 책임' 주제로 열어

지난 11월 29일 서울 꾸르실료회관에서 가진 '2008 사회포럼'은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교회와 사회의 대화'라는 주제 아래 사회현안을 사회 각 분야가 서로 나누고, 교회의 가르침에 비춰보자는 의미로 해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는 '기업경영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가톨릭 사회교리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용석 교수(경성대학교 경제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국민대학교 노한균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가톨릭교회의 평신도들은 특별히 사회교리를 통해 한국기업은 얼마나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하며 그에 접근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이라는 특수성 안에서 모색해 볼 수 있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성찰과 실천을 힘주어 말했다. 노 교수의 발제에 이은 지정토론에서 심현주 박사(서강대학교)는 "기업의 경제활동은 자연법에 의거 인간에게 봉사해야 하는 천부적 사명을 갖고 있다"며 "사회전체의 부를 증진함으로써 공동선에 기여해야 하고, 보조성의 원리에 입각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희생시키거나 선진국이 가난한 국가의 기업활동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고, 이명규 부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은 "한국의 현실에서 노동운동의 입장으로 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이 만날 수 있는 지점으로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매개의 고리역할이 될 수 있다"며 "노동조합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중근 사무처장(바른사회 시민회의)은 "기업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책임은 재무적 성과를 올리는 것이고, 이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며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석 국장(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은 "정부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과 정부가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지원을 협의하는 만남이 중요하다"고 제안하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성장의 잠재력이 되는 기업의 건전성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직원교육이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5회 평화독서감상문대회

컴퓨터와 대중매체에 빠져 살고 있는 현대의 어린이들에게 책을 가까이하게 하고,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한국평협이 평화방송·평화신문, 가톨릭대학교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평화독서감상문대회가 5회째를 맞아 ‘생명·가정·이웃사랑’을 주제로 공모한 독서감상문 가운데 초등부문 대상에 충남 서산 학돌초등학교의 공배영 학생을 선정했고, 특별상 8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15명, 장려상 80명을 각각 선정하였다. 중학생부문에는 충남 계룡 금암중학교의 이맑음새 학생이 대상으로 선정됐고, 특별상 7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10명, 장려상 60명이 각각 선정됐다. 학부모 부문 대상으로는 경기 고양 화수초등학교 황인숙 학부모 외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10명이 선정됐으며, 단체부문으로는 인천 박문초등학교가, 지도교사상에는 강원도 강릉여중 이미자 선생님이 각각 선정됐다.

제25회 가톨릭대상에 최순자씨와 허상희씨, 특별상에 최민호씨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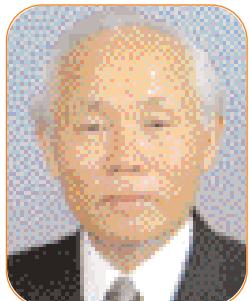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12월 9일 평협회의실에서 한국평협 고문과 회장단, 서울평협 회장단으로 구성된 가톨릭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여규태 한국평협 고문)의 최종심사회의를 가진 결과 제25회 가톨릭대상 사랑부문에 최순자씨와 허상희씨를 선정하고,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최민호씨를 특별상에 선정 2009년 1월 7일 시상식을 갖는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지난 1982년 신뢰회복운동과 함께 시작해서 스물다섯 번째 시상식을 거행하게 된 가톨릭대상은 자신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웃과 세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 봉사하여 공동선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를 가려 뽑아 격려하고 시상하는 제도로 사랑, 문화, 정의평화부문으로 나누어 종교와 종파를 초월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사랑부문으로 수상하게 된 최순자씨는 첫 아이 임신 때 아이와 같이 열병으로 청각장애를 얻게 된 후 희망을 잃지 않고 고통을 딛고 일어나 서예작가가 되어 14년 동안 한결같이 이웃에게 서예를 가르쳐주며 봉사하여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사랑을 줬고, 허상희씨는 지난 1950년대 말부터 자신의 불우했던 청소년기를 잊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가출청소년들을 위해 배움의 기회와 직업을 알선해 주기 위해 광주직업소년원을 설립해 운영해 왔으며, 끼니를 거르는 노인들을 위해 소년원 한 켠을 이용하여 지난 17년 동안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등 하느님의 사랑을 평생 나눠왔다.

최민호씨는 평소 바른 생각과 성실한 태도로 외길을 걸어왔으며, 전국체전 당시에도 “대회를 위해 돈을 받고 뛰는 것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대회 참가금을 거절하는 등 주위 체육인들의 귀감이 됐다. 특히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하여 모든 경기를 한판승으로 이기면서 경제난국으로 어두웠던 온 국민의 마음속에 희망을 심어주었다.

가톨릭대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패와 상금 300만 원씩을 특별상에는 상패와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서울평협 운동 · 단체장들 친교와 연대 다지기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담당 민병덕 신부)는 지난 11월 8일 서울 가톨릭회관 7층 회의실에서 서울대교구 운동·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서로의 활동과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정성화사도직'과 '가톨릭약사회'의 활동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향후 모임에서도 각 단체들의 활동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또한 연 2회로 간담회를 갖기로 하고, 간담회를 통해 친교와 활동 나눔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회를 가질 것을 다짐했다.



제4회 서울대교구 성가합창제에 17개 성가대 참가

평신도주일을 기념하기 위한 서울대교구 성가합창제가 지난 11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성대하게 열렸다. 서울대교구 내 모든 본당의 성가대가 경연의 형식이 아닌 모두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잔치의 장으로 펼쳐지는 성가합창제는 각 지구별로 지구장이 추천하는 성가대가 참가하여 그 동안 본당에서 갈고 닦은 아름다운 화음을 선보였다.



첫날 참석한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는 축사를 통해 '사랑은 노래의 삶'이라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는 성가를 부르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큰 사랑을 표현하며, 우리의 믿음을 나타낸다"며 "성가는 합창으로 노래할 때에 더 깊은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모두가 주님을 향해 일치되어 노래를 부르는 모든 참가 성가대에게 축하한다"고 격려했다.

이번 성가합창제 역시 한국평협이 실시하고 있는 '우리성가 작곡공모'를 통해 입상한 작품들이 연주되어 더 뜻 깊은 시간이 됐으며, 첫날에는 한남동 국제성당 연합성가대가 지난해에 이어 특별출연해 모두를 기쁘게 했다.

평신도학교 '공의회과정' 2학기에 74명 수료

평신도봉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을 공부하는 과정으로 서울평협이 열고 있는 평신도학교 '공의회과정' 2학기(9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수료식이 지난 12월 9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74명의 2학기 수료자와 40명의 1,2학기 전과정 수료자가 배출됐다.



평협 담당 민병덕 신부는 수료미사 강론을 통해 "이렇게 길고 어려운 과정을 많은 분들이 성실히 참여해 주신데 감사드린다"면서 "세례 이후 이렇다 할 신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더 열심히 교육에 임해주기 바란다"며 격려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미사 중에 수강생들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함께 가졌는데, 참석자들은 "신자로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기에 필요한 교육이었다"며 "너 많은 신



자들이 교육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평협은 2009년에는 매주 월요일로 시간을 옮겨 3월 9일부터 ‘공의회과정’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제7차 선교포럼 가져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교회의 사명인 선교를 장려하고, 신자들이 더 실질적으로 선교에 임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선교포럼의 2008년도 마지막 차례로 지난 12월 13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선교 소명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150여 명의 본당 선교분과장과 위원, 선교관련 단체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르바노대학에서 선교학을 전공한 이상덕 박사의 주제강의와 서울대교구 선교 전례담당 양희룡 신부의 주례로 파견미사를 가졌다.



단체 소식

서울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 소식

송년감사미사와 제16회 자랑스러운 가톨릭경제인상 시상식

서울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는 지난해 12월 13일(토) 명동대성당에서 ‘송년감사미사와 제16회 자랑스러운 가톨릭경제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해를 보내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이 미사는 정진석 추기경이 집전하고 많은 회원과 가족들이 참석했다. 16회 자랑스러운 가톨릭경제인

상은 박광순 상임고문이 수상하였고, 특별공로상은 제주교구 가톨릭경제인회 초대회장을 지낸 장시영 자문위원이, 공로상은 김철중 부회장과 김원정 운영위원이 받았다. 경제인회 활동이 가장 활발한 대구대교구가 모범교구상을 수상했고, 14회 모범근로자상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차상윤 차량 주임에게 돌아갔다. 시상식 후 전 회원이 함께 한 만찬은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으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화합의 시간으로 꾸며졌다.

그리고 12월 16일 주한 교황대사를 초청하여 조찬 강연을 겸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는 평신도들이 교회의 최전방에서 자유와 정의 등 복음적 가치를 선포하며 직업을 잃은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는 2009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국제분과가 중심이 되어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새롭게 전개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 대상이 과테말라의 ‘천사의 집(아동 보호시설)’이 될 것이며 2009년 여름 사랑의 집짓기 봉사자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신규 사업으로는 2010년에 의정부교구에서 개최되는 제2회 한국청년대회를 후원하기 위한 지원금을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사도 바오로의 해를 맞이하여 회원들이 터키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4월 중에 외국인 신자 근로자와 이 사목에 종사하는 외국인 수도자들을 초청하여 위로잔치를 실시하려고 한다. 이러한 신규 사업은 1월 17일 정기총회에 보고 될 예정이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008 본당 회장단 · 단체장 연수회 개최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윤성, 담당 임기선 신부)는 지난 12월 6~7일 정하상교육회관에서 59개 본당과 7개 단체를 비롯하여 교구 선교사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공동체가 활발한 친교의 교회 건설’을 주제로 2008 본당 회장단 및 단체장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의 개회미사로 시작하여 ‘유 주교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2009년 사목교서 해설 및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어 임기선 사목기획국장 신부의 소공동체 교육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파견미사에서 교육을 이수한 참석자에게 소공동체 교육 수료증이 발급됐다.



오만진 형제 아우구스토 십자가 훈장 수상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평신도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인 아우구스토 십자가 훈장 수여미사가 지난 11월 15일(토) 오후 4시 30분에 대전교구청 경당에서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와 유흥식 라자로 주교를 비롯한 교구 사제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가족과 친지 80여 명이 함께 한 이 미사에서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는 심대평(임마누엘)과, 오만진(아가비도) 형제에게 아우구스토 훈장을 수여하면서 “두 분께서는 교회와 사회 안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보기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오만진 형제는 제15대 대전평협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아우구스토 십자가 훈장은 교황 성하께서 평신도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으로 대전교구에서는 처음으로 수여됐다.

2008 교구 신심사도직단체 · 동호회 송년 정기모임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12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가톨릭문화회관 3층 전리관에서 교구장 유흥식 주교와 임기선 신부, 이재훈 신부를 모시고 신심사도직단체와 동호회 28개 단체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구 신심사도직단체 · 동호회 송년 정기모임’을 가졌다.

정기모임에서는 각 단체가 2008년 한 해 동안 한 일과 성과, 2009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유흥식 주교는 단체장들의 한 해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2009년의 사목교서처럼 말씀을 증거하는 삶으로 친교의 교회를 이루는데 단체들이 힘써주기를 당부했고, “교회의 공동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분야, 모든 방법을 통하여 노력하자”며 “다양한 영성들과 단체 · 동호회가 있어 교회가 더 풍요롭다.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사랑을 전파하자”고 말했다.

모임 후에는 조촐한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뜻다 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신심사도직단체 · 동호회 송년모임은 2006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임원회정개최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최중우, 담당 안규태 신부)는 지난 11월 21~22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에 소재하고 있는 '해음' 피정의 집에서 임원회정을 가졌다.

임원들은 회의에서 인천교구 평협의 발전을 위한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각 부서의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며 임원들의 단합과 함께 일치의 시간을 가졌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부산교구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순례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장춘길, 담당 이영묵 몬시뇰)는 2007년에 부산교구설정 50주년을 기념하여 교구 내 신앙 순교 사적지를 3박 4일 동안 도보 순례를 실시했고, 2008년에는 광안리 수영 장대에서 순교하신 양재현 마르티노와 이정식 요한의 시복시성을 위하여 매 월 마지막 토요일 도보순례를 5차례 걸쳐서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순례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 150명이 넘는 신자들이 참석했고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약 160여 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고 있다. 수영 장대를 출발하여 토곡을 거쳐 온천천으로 들어서면 조별로 묵주기도 15단을 바치며 명륜역까지 걸어간다. 도



보순례 깃발을 앞세우고 질서정연하게 두 줄로 걸어가며 묵주기도를 바치는 모습, 정말 아름답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가한 분들이기에 도보 시에 교통질서도 잘 지키고 온천천을 산책하는 분들에게도 조금의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올리는 묵주기도 소리가 터널을 지날 때면 공명이 일어나 대단한 합창으로 울려 퍼져 나간다.

참가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난해 3박 4일간의 도보 순례 감흥을 기억하며 참가한 분들, 마라톤 동호회원들,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20명이 참가하여 15명이 완주한 민락성당 주일학교팀, 묵주기도 70 단을 봉헌한 이영묵 몬시뇰, 단체로 참가한 예수성심전 교회수녀들, 신학교 교수 신부들, 노숙자 봉사활동에 정성을 다하는 신빈회팀, 레지오 및 신심단체들, 신앙학교 사도회팀, 까리따스 자원봉사자팀, 평협 회장을 비롯한 평협 간부들,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묵주기도 바치며 행진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3시간 반을 걸으며 다리가 아파올 때 쯤 오륜대 순교자 기념관 성당에 도착하여 바치는 미사, 정말 가슴 벅차 오르는 감동이다. 장대골에서 순교한 순교자들의 시신을 메고 이분들의 시복시성을 위한 묵주기도를 바치며 걸어온 고통들이, 한 순간에 기쁨과 감사의 기도로 변하는 미사를 봉헌하며 도보순례의 일정을 마감하며 부산교구는 이 도보순례를 시복시성이 되는 그 날까지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단체 소식

대림절 신양강좌

-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



부산교구 가톨릭경제인회, 건축사회, 세무인회, 등대회(가톨릭 공무원)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지난 12월 1일(토) 저녁 7시부터 범일동 하모니 예식장에서 이홍기 몬시뇰을 초청하여 대림절 신양강좌를 실시했다. 이 몬시뇰은 “가톨릭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가톨릭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으며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삶 안에서 실천해 주기를 강조했다.

이날 신양강좌는 오창일 교구관리국장 신부 담당 산하 단체의 단합 및 친교의 의미도 함께 포함하기에 띠앗콜핑 회원들의 찬조출연은 분위기를 한 층 더 고조시켰고 등대회(부산교구 가톨릭신자 공무원회) 회원이자 부산시장인 허남식 아우구스티노, 평협 임원들이 함께하여 더 풍성한 자리가 됐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교구단체장 연석회의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강신근, 담당 유영봉 몬시뇰)는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교구단체장 연석회의』를 지난 12월 19일(금) 마산M호텔에서 50여 명의 교구 단체장과 사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교구단체장 연석회의는 연2회 상·하반기에 하는 정기회의로서 교구장, 담당사제들이 참여하여 교구단체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보고와 토론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는 교구장 안명옥 주교와 총대리 유영봉 몬시뇰, 광주교구 사회복지국장, 양태현 사목국장 신부 그리고 35개 교구단체장과 자문위원 및 교구평협위원 등이 참여하여 한 해를 정리하고 2009년도 교구발전과 복음화

를 위한 교구단체 활성화의 방안을 모색하고 ‘봉사와 증거의 삶’을 실천하는 교구단체로 발전하기를 기원하였다. 제1부 만찬을 시작으로 제2부에서는 교구설정40주년을 기념하여 교구평협에서 펼친 “WJC-32X” 복음화운동 (With Jesus Christ-3년간 교세 2배 확장운동)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문위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이어서 교구단체별 사업과 현황을 영상을 통한 보고회와 자유토론을 통하여 교구장주교께 교구단체의 문제점과 지원방법 등을 건의하는 ‘간담회’와 교구장 강평으로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안명옥 주교는 강평에서 교구의 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헌신봉사하면서 중추적인 역할에 앞장서서 실천하신 교구단체장들에게 거듭 감사를 표현하고, “다가오는 2009년에도 하느님 때문에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자문위원들의 사랑과 헌신적인 도움에 감사를 드리고, 2008년 교육관봉헌을 통하여 교구민 모두가 나눈 감격의 기쁨이 이제는 인간화, 그리스도화, 영성화되는 교육관으로 발전하도록 친절과 겸손의 영성으로 태어나기를” 부탁했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바오로해 성경필사운동 전시회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기수, 담당 김종주 신부)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바오로해 기념으로 바오로서간과 사도행전을 범위로 성경필사운동을 펼쳤다. 이번 성경필사운동을 펼친 목적은 바오로 해를 맞이하여 신앙선조들인 초대교회 사도들의 삶을 묵상하고 새겨봄으로써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닮아 보고자 함에 있다. 이번 필사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재소자 39명이 참여했고, 뇌



성마비 장애인들이 신체장애를 극복하고 필사한 경우도 있다. 떡을 갈아 붓글씨로 정성껏 필사한 분, 86세의 고령에서부터 13세의 초등생까지 다양한 참여로 많은 감동을 주었다. 96개 본당과 교도소, 양로원, 수녀원에서 1,100여명이 참여하여 최우수상 1명(장재마/ 목포하당본당), 우수상 2명(유갑룡/ 영산포본당), (김영주/ 두암동본당), 장려상 5명이 각각 수상했다.

전시회는 성서주간인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열렸다. 이에 교구평협에서는 많은 보람을 느끼고 다음 해에도 다양한 성경쓰기를 펼쳐 교구 전 신자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도록 다짐했다. 이번 필사운동에 참여한 신자들을 대상으로 2009년에는 성경경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 영명축일 축하 행사

11월 29일 주교좌 임동성당에서 교구장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의 영명축일 축하행사가 있었다. 교구평협에서는 꽃다발 증정과 전 교구민의 정성을 담은 영적예물 중



정이 있었고, 이어 축하연 자리를 마련해 사제, 수도자, 교구청 직원, 평신도들이 모여 축하를 해 주었다. 특히 파주와 서울에서 대주교님의 지인들이 참석하여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단체 소식

광주교도소 내 반석공소의 성경암송대회 개최

교정사목후원회(회장 양월금, 담당 김재중 신부)는 12월 11일 광주교도소 내 반석공소에서 재소자 신자들이 모여 성경암송대회를 가졌다. 바오로해를 맞아 교구평협에서 실시하는 필사운동에도 39명의 재소자가 참여해 큰 감동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바오로서간을 범위로 30명이 참여해 괄호넣기, 장·절 맞추기, 구절외우기, 단락 통째로 외우기 등 암송대회를 열었다. 최종 3명이 남았는데 내는 문제마다 척척 외워서 모두가 놀라움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고,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 공동우승으로 결정했다. 비록 수감 중인 몸이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통째로 외우기까지 하는 모습에서 회개하는 자를 더욱 어여뻐 여기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사도직단체평협 산행

광주평협 내 3개 단체평협 중 사도직단체평협(회장 강영옥, 담당 김종주 신부)은 10월 22일 사도직 6개 단체(시각장애인선교회, 광주가톨릭합창단, 여성산악인회, 빙천시오아바오로회, 국악인회, 장애인복



지협의회)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담당사제와 함께 무등산으로 산행을 다녀왔다. 특히 이날은 광주광역시 동명동에 소재한 ‘막달레나의 집’ 시각장애인들을 인도하며 함께 등반을 해서 더욱 의미있는 산행이 되었다.



성체신심 대피정

광주대교구 지속적인성체조배회(회장 황규열, 담당 송종의 신부)는 11월 11일 주교좌 임동대성당에서 ‘영성심화의 해’ 성체신심 대피정을 가졌다. 이날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주교구 내수성당 주임 서정혁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성체,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열강을 해주었다.

제14회 광주가톨릭사진회 회원전

가톨릭사진가회(회장 송창근, 담당 김양희 신부)는 12월 18~23일 광주메트로갤러리 전시실에서 제14회 가톨릭사진회 회원전을 열었다. 18일 개막식에서는 교구장 최

창무 대주교가 참석하여 격려하였고, 송창근 회장은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현대적 감각에 걸맞는 작품을 만들어 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깊은 관심을 보여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다.



어느 우루과이 성당의 벽보에서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자기들은 세상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하느님의 아들딸로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도 하지 마라.

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체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지 마라. 죄를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못 본 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레지오 마리애 지도 수녀 교육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단장 팽종섭, 담당 민병덕 신부)는 산하 각급 평의회와 빠레시디움을 지도하고 있는 수녀에 대한 교육을 지난 11월 11일 사목센터에서 실시했다.

오전에 담당사제인 민병덕 신부에 의해 ‘한국 천주교의 30~40년의 발전사에서 레지오 마리애의 역할’과 ‘레지오 마리애의 창설자 F. 더프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 받았다. 또한, 팽종섭 단장은 “레지오 마리애 단원들이 엄격한 규정을 바탕으로 한 본당 사목 방침의 실천과 선교를 목표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찬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진 자유 토론 시간에는 본당에서 수녀들이 그동안 레지오 마리애를 지도하면서 파생된 문제점과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 응답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격년제로 실시된 이번 지도수녀 교육에는 66명이 참석했다.



서울 3개 레지아 설립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는 그동안 지방 7개 교구 레지아와 서울의 방대한 33개의 직속 꼬미씨움으로 운영되어 오던 레지오 마리애 조직을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과 꼰칠리움(아일랜드 세계 평의회)의 승인 아래 새롭게 개편했다. 서울의 33개 꼬미씨움을 각각 중서울, 동서울, 서서울 지역의 3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이를 각각의 11개 꼬미시움을 지도하는 3개 레지아(Regia)를 설립했다. 중서울 지역은 염수정 주교의 관할 지역으



로 ‘원죄없이 잉태된 마리아 레지아’의 본부가 명동 주교좌 성당에 있으며, 동서울 지역은 김운회 주교의 관할 지역으로 ‘그리스도의 모친 레지아’의 본부는 풍납동 성당에 있으며, 서서울 지역은 조규만 주교의 관할 지역으로 ‘그리스도의 어머니 레지아’의 본부는 목5동 성당에 있다.

이들 레지아의 설립 미사는 중서울 지역이 11월 30일 오후 2시에 타 교구 평의회 임원, 전직 세나뚜스 단장을 비롯한 귀빈들과 해당지역 평의원 및 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염수정 주교의 집전으로 봉헌됐고, 중서울 지역은 김운회 주교의 집전으로 12월 7일에 풍납동 성당에서, 서서울 지역은 조규만 주교의 집전으로 12월 14일 목5동 성당에서 각각 봉헌됐다.

한국가톨릭 간호사협회

보수교육 개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2008년도 보수교육이 11월 12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톨릭대 의과학연구원 1002호 강의실에서 ‘성가정과 가족건강 – 아동학대 및 성폭행 예방’을 주제로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보수교육은 부산가톨릭대학교 한정애 교수의 “학대받은 아동의 심리와 상담”, 서울아산병원 수간호사 김은숙 선생님의 “아동학대 및 성폭행 예방” 그리고 문종원 신부의 “학대 아동의 영적 치유”로 이어졌다.





일본, 베드로 키베 신부와 187위 순교자 시복식'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회장 참석



'베드로 키베 신부와 187위 순교자 의 시복식'이 11월 24일 일본 나가사키시 빅스타디움에서 3만 명에 이르는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어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김남초 회장이 참석하였다.

한국가톨릭 나사업연합회

제42차 정기총회 개최

한국 가톨릭 나사업 연합회의 '제 42차 정기 총회'가 연합회 사업기관 대표와 봉사 수도회 및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11월 20일(목요일)에 서울 합정동 연합회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담당 김화태 신부의 시작기도와 회장 채규태 알비노 교수의 인사로 시작된 이 날의 총회는 2008년도 경과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활동보고 그리고 2009년도 예산(안)심의가 있었다. 정기총회에 앞서 11월 6일 살레시오회의 황복만 수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한국가톨릭 의료협회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정기 세미나 및 이사회

한국가톨릭의료협회(회장 최영식 신부)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강원도 양양 대명 콜비치 리조트에서 '가톨릭 의료인의 사명과 대북의료지원'을 주제로, 가톨릭 의료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정기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특히 '세터민 의료현황'과 '대북의료지원 현황'에 대해 고경빈 하나님장과 김훈일(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대북지원소위원회 간사) 신부 강의를 듣고, 북녘 동포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실질적 의료지원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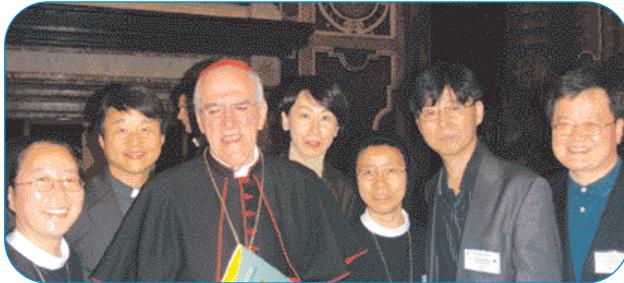
세미나에서는 또 가톨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지켜야 할 윤리 기준과 구체적 실천지침을 담은 「가톨릭 의학윤리 지침서」 개정에 따라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이동익 신부의 의학윤리 강의와 '가톨릭 의료인의 사명' (차동엽 신부), '최신 병원정보 시스템' (최병길 가톨릭대 교수)에 대한 강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이사회에서는 대북 의료지원 뿐 아니라 몽골에서 지속적이고 원활한 의료선교 사업을 펼치기 위해 몽골 다르항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도록 의결하였다.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제23차 세계대회 참석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제23차 세계대회가 2008년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로마 바티칸에서 개최되어 한국 가톨릭의료협회에서 6명의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어린이 환자를 위한 사목적 배려"(Pastoral Care in the Treatment of Sick Children)의 주제로 열린 올해 세계대회에는 - 세계 어린이 환자 진료에 대한 역사, 세계 어린이 인구통계와 사망률 통계, 어린이에게 치명적인



주요 질병, 어린이들의 질병과 세계화, 어린이 질환의 원인, 성서에 나온 어린이 환자 돌봄, 어린이 환자 돌봄을 위해 일생을 바친 성인들의 증거 등 어린이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과 기관, 어린이 환자들을 위한 영성적 도움(성사와 기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등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대회 마지막 날 교황님(베네딕토 16세)의 강복도 받을 수 있었다.

몽골아이 ‘우린’ ‘갈랑다옥’ 무료 치료 도움

선천성 쇄항증을 가진 몽골아기 ‘우린’(2008년 5월 10일생)과 3세 때 개에게 물리논 사고로 안면 긴형을 지니고 살아온 ‘갈랑다옥(남, 17세)이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다.

부모가 한국에서의 불법체류로 강제 출국당한 뒤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우린’은 몽골에서 활동중인 살레시오회 이호열 신부가 본 협회에 도움을 청하여 2008년 10월 28일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소아외과 이명덕 교수)에 입원하였으며, 11월 5일 항문성형술을 받고 수술 결과는 매우 양호한 상태이다. 수술비와 앞으로의 재활치료비는 전액 강남성모병원의 자선기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갈랑다옥은 현재 10학년(고1)이며 어머니와 남동



생과 함께 국가 지원 보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3세 때에 사고를 당한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형편과 몽골의 뒤떨어진 의료수준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본 협회의 몽골 의료선교에서 초진을 받으면서 한국으로의 초청 대상자가 되었다.

그 후 다르항시 살레시오 회관의 이호열 신부가 진행하는 방과 후 교실을 통해 성당에 나가 예비자 교리를 받고 있으며, 11월 10일 여의도 성모병원 성형외과(변준희 교수)에 입원하여 CT 촬영, 골밀도 검사 및 안과 검사 등 각종 검사를 해보니, 안와를 형성하는 뼈가 으스러진 상태이며 눈물샘도 막혀있어 11월 12일 안와재건수술을 받게 되었다. 현재 진료는 안과와 성형외과 등 협진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 치료가 끝나면 1년 후 다시 2차 안면 성형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갈랑다옥’의 치료비용 또한 전액 성모병원에서 자선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 ‘베드로 키베 신부와 187위 순교자 시복식’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임원 참석



‘베드로 키베 신부와 187위 순교자의 시복식’(이하 시복식)이 11월 24일 일본 나가사키시 빅스타디움에서 3만 명에 이르는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시복식은 시성성 장관 호세 사라이바 마르틴 추기경의 주례로 거행되었으며, 본 협회에서는 ‘시복식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는 7주’의 기도를 같이 드리고 최영식 회장 신부를 비롯한 5명의 사제와 10명의 임원이 참석하였고 3명의 의료진을 파견하여 시복식 행사 중 응급의료를 지원하였다.



한국가톨릭 언론인협의회

제18회 매스컴 시상식 참석

한국가톨릭 언론인협의회(회장 김지영)와 한국가톨릭 커뮤니케이션협회(SIGNIS·회장 오광성), 한국가톨릭신문출판협회(UCIP·회장 황진선)의 회원들은 12월 2일 서울 대교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위원장 조환길 주교)가 주최하는 제18회 가톨릭 매스컴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가톨릭 언론인협의회 등 3개 매스컴관련 단체는 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가 매년 하반기에 매스컴위원회 김민수 신부가 주도하는 가톨릭매스컴 상의 공모 및 심사·선정·시상 과정에 참여해 함께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번 가톨릭 매스컴 상의 대상은 탈북 가족의 아픔을 그린 김태균 감독의 영화 '크로싱' 이, 방송부문은 다문화 가정의 애환과 대책을 다룬 전주방송의 '피우자 민들레' 가, 신문부문은 비정규직 800만 시대의 문제를 심층 보도 한 경향신문의 '한국인 절반 이렇게 산다' 가 각각 수상했다. 또 출판부문 상은 문예출판사의 전병석 대표가 받았다.

언론인 신앙학교 19기 수료미사

한국가톨릭 언론인협의회는 12월 3일 서울대교구 명동 성당 꼬스트홀에서 언론인 신앙학교 19기 수료미사와 수료식을 열었다. 소성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염수정 총 대리주교와 언론인 협의회 지도신부인 허영엽 서울대교구 흥보국장,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 지도신부 김영춘 평화방송 주간, 가톨릭신문출판협의회 지도신부인 고준



석 가톨릭대교수 등의 사제단이 주재했다.

수료미사와 수료식이 끝난 뒤에는 만남의 방에서 가톨릭언론인 송년회가 열려 사제들과 신자언론인 150여 명이 음식을 함께 나누고 여흥을 즐기는 가운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다짐을 하면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지난 11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명동성당 사목회관에서 교육을 받았던 19기 수료생은 19명이다. 언론인협의회에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신자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신앙재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300여 명이 이 과정을 수료했다. 수료생들은 정진석 추기경이 주는 수료증을 받는다.

언론인산악회 성거산 성지 산행

가톨릭언론인 산악회(회장 최홍운)는 11월 22일 회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성거산 성지를 참배하고 성거산에서 배터성지까지 8km 거리의 산행을 했다. 성거산 성지는 1860년대부터 1920년 사이에 신앙 선조들이 박해를 피해 은거하며 여러 교우촌들을 형성하고 신앙을 키웠던 곳. 특히 소학골 교우촌은 1866년 병인박해 때 니콜라 칼레 신부, 폐롱 신부, 뮤델 주교, 두세 신부, 베르모델 신부가 숨어 지내며 사목활동을 한 곳으로 병인박해 때 열 분이 순교를 했다. 성거산 성지에는 또 74기의 무명 순교자 출무덤이 있다.

산악회는 12월 27일엔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에 있는 황사영 알렉시오 성인의 묘를 참배하고 사패산을 등산했다.

매리지 앤카운터 한국협의회

II7차 디퍼주말

한국ME는 지난해 11월 9일 프란치스코 회정의집에서 전국 각 교구에서 참석한 15쌍의 부부와 5명의 사제를 대상으로 디퍼주말을 실시하였으며 한국대표(이윤식 휴고·조윤숙 안젤라 부부, 김용태 요셉 신부)가 발표에 임했다.



위령미사 봉헌

한국ME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지난 11월 22일)에 서울 동성고 종교관 성당에서 ME가족 중 세상을 떠난 분들을 위한 연도와 위령미사를 한국ME협의회 임원과 위원들, 선배 발표팀 부부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성고등학교 종교관에서 봉헌했다. 미사를 집전한 김웅태 요셉 한국 대표 신부는 “ME 공동체 안에서 헌신했던 신부님들, 부부들, 그들이 우리 공동체에 남겨 놓은 현신과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욱 ME 사도직의 사명에 충실히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론했다.



중국 북경 2차 주말실시

북경 2차 ME 주말이 한인 교민을 위하여 지난해 11월 28일~30일 북경 왕징에서 있었다. 중국 심천 교민 사목

중인 김문상 디오니시오 신부와 과 한국에서 정진상 다미아노 · 기연선 에테네아 부부, 상해 송태만 안드레아 · 고혜경 비비안나 부부, 북경 김시환 파트리시오 · 경춘숙 그라시아 부부가 주말 봉사에 참가했다.

발표에 임한 정진상 · 기연선 한국ME 총무부부는 “4박 5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경ME 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보았다”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부부 사랑을 봄소 실천하는 북경 교민사회를 체험하면서 눈시울도 여러 번 붉혔고 ME 주말 안에 하느님의 크신 은총을 체험하며 아름답고 행복한 주말이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 주말에 14쌍의 부부가 ME부부로 탄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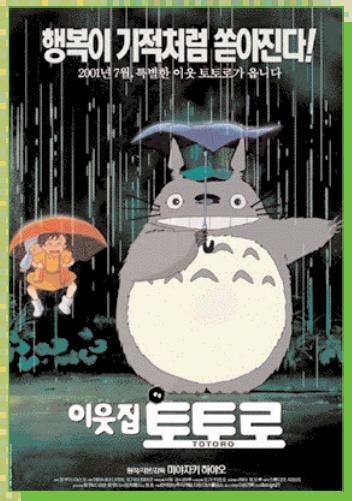


II, 12월 2개월간 전국 15교구에서 총18회의 ME주말

한국ME는 각 교구별로 별도의 주말 장소를 통해 지난 해 11, 12월 2개월간 총 18회의 ME주말이 실시했으며 이를 통하여 360쌍(720명)이 ME주말을 체험했다. 아울러 ME의 부속 사도직 프로그램중 하나인 ‘선물’ 프로그램도 작년의 ‘감각 사랑의 언어’ 와 마찬가지로 대구대교구에서 지난 12월 29일 실시됨으로써 전국 확산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중·은·영·화·보·기

좋은 영화보기는 서울평협이 영화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교황청에서 선정한 위대한 영화 45편과 매년 미국 주교회의에서 선정하고 있는 좋은 영화 목록 가운데서 매월 첫 화요일에 상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웃집 토토로

감독 : 미야자키 하야오(1988년 작품)

연말을 보내면서 가족이 함께 감상 할 수 있는 영화로 일본의 문화 콘텐츠가 수입되기 전부터 만화영화 마니아들로부터 사랑받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TV 만화 연속극 ‘미래소년 코난’, ‘프란다스의 개’가 그의 작품이라는 사실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을 여러 편 만나고 난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었다. 그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붉은 돼지’, ‘하울의 움직이는 성’, ‘천공의 성 라퓨타’ 등 수 많은 작품을 통해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인간 개개인의 욕심이 인간사회와 문명을 파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사실과 같은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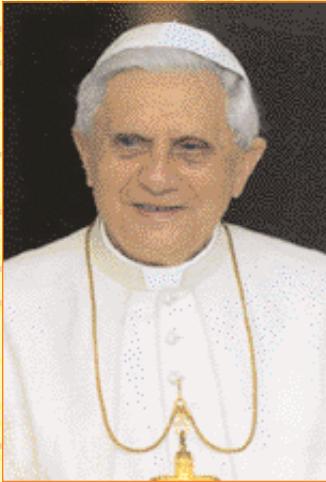
‘이웃집 토토로’에서 11살 사츠키, 4살 메이 자매는 아빠와 함께 시골로 이사 오게 된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어서 두 자매는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아빠와 살고 있다.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귀가가 늦은 아빠를 마중하기 위해 기다리다 거대한 요정 토토로를 만나게 되고 토토로에게 우산을 빌려주게 되면서 두 자매는 토토로와 친구가 된다. 엄마가 그리운 두 자매 특히 4살 메이에게는 엄마의 따뜻한 품이 간절한데 임시 퇴원하여 집으로 오시겠다던 엄마가 심한 감기로 오지 못하자 홀로 엄마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간다. 사츠키와 동네사람들은 메이를 찾아 나서게 되고 메이가 길을 잃게 되면서 절망에 빠져있을 때 토토로의 도움으로 메이를 찾게 되고 엄마의 병원까지 갈 수 있게 된다.



오랫동안 구세주의 오심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절망에서 부활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과 같이 존중하라는 하느님의 명령이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존재가 아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생각하며 토토로처럼 이웃집의 아주 친근한 존재로 남아 있기를 희망해 본다.

교·황·님·말·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2009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에게 하신 삼종기도 훈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올해 첫 날 이 곳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평화와 행복을 빕니다. 이러한 축원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우리나라오는 것이기에 말하자면 “믿을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축원은 우리가 이 즐음 경축하고 있는 사건, 곧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하느님의 말씀의 강생을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은총을 통해, 오로지 그 은총을 통해서만, 우리는 언제나 미래가 과거보다 나을 것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자신의 운명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거나 현대 시장과 금융 구조에 자신을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 주님의 자애로우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히브 1, 2) 복음 설교를 통해 그리고 우리 양심의 소리를 통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비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영적인 구원이긴 하지만 사회적, 역사적 차원을 비롯한 인간적 차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경축하면서, 40년 남짓 세계평화의 날을 이 날 함께 지내며 예수님께서 평화의 군주이심을 모든 이에게 알려줍니다. 하느님의 종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시작하신 전통에 따라 저는 이 기회에 “빈곤 퇴치와 평화 건설”이라는 주제를 택하여 특별 담화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다시 한번 국가 지도자들과 국제기구 지도자들과 대화를 갖고 가톨릭 교회가 인간다운 세계 질서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해 벽두 제가 하고 싶은 첫 번째 일은 바로 모든 이들에게, 통치자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어려움과 실패에 굴하지 말고 부디 힘내어 다시 노력하라고 권하는 일입니다. 2008년 후반부에는 방대한 규모의 경제 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그 원인을 밝혀야 할 심각한 증세로서 철저히 연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천 조각을 헌 옷에 대고 입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마르 2, 21 참조)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보살필 수 있으려면 성실하게 법을 존중하고 언제나 공동선을 지향하는 가운데 시장의 잠재력과 시민 단체의 잠재력을 결합시키면서(담화문 12항 참조), 이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대로 세계 차원에서 연대성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빈곤 퇴치 운동을 벌이신 적이 없지만 가난한 이들을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교회도 복음화와 인간 증진 활동을 꾸준히 벌임으로써 같은 일을 합니다. 천주의 모친 동정녀 마리아님께 모든 민족들이 평화의 “길”을 함께 걸어 가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청합시다.

특집

제 12차 주교 시노드

이 글은 지난 10월 '교회의 삶과 사명에서의 하느님 말씀' 이란 주제로 열린 세계 주교 시노드에 옵서버로 참석한 한홍순 회장이 주교 시노드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지난 10월 5일부터 26일까지 "교회의 생활과 사명에 있어서 하느님의 말씀"을 주제로 바티칸에서 열린 제12차 주교 시노드(대의원회의)는 새 천년대 교회의 사명 수행에 있어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회의였다. 그것은 2005년 시노드에서 성체성사를 다룬 데 이어 이번 시노드가 하느님의 말씀을 다름으로써 교회생활의 원천 전반에 대해 성찰하여 교회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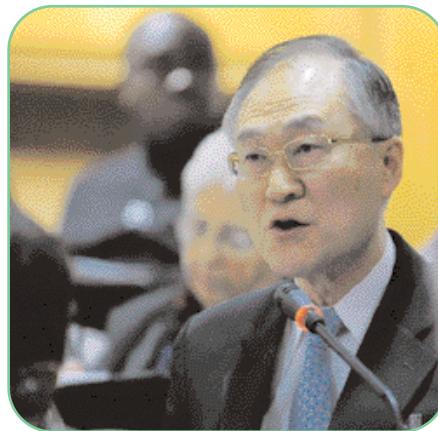
주교 시노드는 원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산물로(주교 교령 5항 참조) 세계 공의회가 자주 열릴 수 없는 만큼 이에 벼금가는 교회 회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주교 시노드는 대체로 3년마다 열리며 교황이 전 세계 주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주제를 갖고 토의를 벌인 다음 그 결론을 투표를 거쳐 교황에게 건의하며 교황은 이 건의를 검토하여 응답하는 교황권고를 발표하게 된다.

주교 시노드에 참석하는 대의원은 각국 주교단의 단원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주교 수 25명 이하인 경우 1명, 50명 이하인 경우 2명, 100명 이하인 경우 3명, 100명을 넘는 경우 4명이 참석하며, 그 밖에 교황청 부서장들과 교황이 임명하는 대의원들이 참석한다. 아울러 교황이 임명하는 전문가들과 옵서버들도 주교 시노드에 참석한다. 이번 주교 시노드에 한국 교회에서는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가 대의원으로, 그리고 필자가 옵서버로 참석했다. 교황과 함께 세계 각국 교회의 주교 대표들이 모여 신부, 수도자, 평신도들과 더불어 교회의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인 만큼 주교 시노드는 세계 교회 차원에서 명실 공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한 친교의 교회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번 시노드는 마침 만백성의 사도인 바오로의 해에 열림으로써 이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출발하여"(새 천년기 III)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야 할"(루카 5, 4참조) 교회의 선교 사명을 다짐하기에 더욱 뜻있는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이번 주교 시노드는 우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중요한 문헌인 「계시현장」이 반포된 지 4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간 현재 보편 교회 차원에서 어떠한 결실이 맺어졌는지 점검하고 다양한 생활 현장에서 삶의 원천인 「말씀」과 만나는 일을 더욱 확고히 하도록 하기 위해 신자들과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찾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가? 대다수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가난한 나라의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전 세계의 언어가 6,700개에 이르고 이 중 3,000개는 주요 언어로 치는데 비해 성경은 2,454개 언어로 번역되었을 뿐이다.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되었고 가장 널리 보급된 책임에는 틀림없지만 많이 읽히지는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가톨릭 성경 연합」이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앙생활을 하는 이태리 신자들의 38%만이 최근 1년 동안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비율은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면 27%로 내려간다. 조사대상국 사람들의 50% 이상이 성경은 알아듣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성경을 교회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할 필요가 절실한 것이다.



이에 시노드는 각 지역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점(건의안 42항), 모든 신자들이 손쉽게 성경을 접하여 읽도록 하는 일이 긴요하고 현대 기술이 제공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성경을 보급해야 하며, 이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점(건의안 43항)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노드는 사회홍보 매체들을 잘 알고 이것들의 급속한 변화를 따라가며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인터넷과 같은 수단을 통해 사회홍보에 투자할 것을 권고한다(건의안 44항).

한편 대다수 시노드 교부들은 강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강론 쇄신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신자들이 설교 교역에 대해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족은 많은 신자들이 다른 종교로 떠나가는 부분적인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에 시노드 교부들은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강론은 선포된 말씀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루카 4, 21).’ 그것은 거행되는 신비에로 인도하여 사명에로 초대하며 신자들의 기쁨과 고통, 희망과 두려움을 함께 나누도록 하여 회중에게 신앙고백(신경)과 미사의 보편지향 기도를 준비시킨다.

백성들과 함께하는 모든 미사 때에, 평일 미사 때에도, 강론이 있어야 한다. 강론자들(주교들, 신부들, 부제들)은 기도 중에 준비하여 확신과 열정을 갖고 강론해야 한다. 이들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선포된 독본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현 상황에서 나는 공동체에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강론자는 자신이 선포하는 하느님의 말씀이 우선 자신을 향하게 해야 한다. 강론은 교리로 무장하여 교회의 가르침을 전달함으로써 듣는 이들의 신앙을 굳건히 하여 이들로 하여금 미사 중에 회심하도록 하여 파스카 성찬 신비의 실현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건의안 15항) 아울러 시노드 교부들은 강론자의 말씀 교역을 도와주기 위해 설교법 원리, 의사전달기술을 비롯하여 전례에서 사용하는 성경 주제들의 내용을 담은 ‘강론 지침서’의 편찬을 건의한다.

2. 시노드는 성경은 기도와 함께 읽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경을 읽는 것은 곧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에 시노드는 사목자들과 특히 미래의 사제들이 신자들에게 이러한 방향으로 영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하여 신자들이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가장 적절한 방법 (거룩한 독서, 피정, 복음나누기 7단계, 다양한 방법의 기도, 가정과 소공체에서의 나눔 등)을택하여 기도와 함께하며 성경을 읽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건의한다.(건의안 22항) 시노드 교부들은 또한 가정마다 성경을 갖고 부모와 자녀가 성경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할 것을 권고한다.

성경 읽기와 기도에 관해 이번 시노드에 참석한 폴란드의 크라코프대교구장 스타니스와프 지비쉬 추기경이 소그룹 토의에서 들려준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지비쉬 추기경은 39년 간 요한 바오로 2세의 개인 비서로 일한 분으로 요한 바오로 2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모습을 회고하며 다음과 같이 중언하였다. “교황님께서는 [현 교황이신] 라칭거 추기경 등 측근들과 작별 인사를 마치신 다음 제게 요한 복음 9장을 읽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제가 읽어 드리는 요한복음 9장을 들으며 운명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매일 한결같이 성경과 함께 기도하며 사신 분입니다.” 지비쉬 추기경은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잊지 못하였고 20여 명의 참석자들도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졌던 요한 바오로 2세의 생전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깊은 감회에 젖었었다.

성경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것은 사랑 실천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사랑 실천이야말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평신도들은 바로 세례성사에서 나오는 자신의 예언자적 의무를 다할 책임을 재발견하여 가정과 일터와 자기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 일상생활에서 복음을 중언하도록 불리었다.”(건의안 38항)

이어 시노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느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도와 인간과 피조물의 현실을 사랑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그것은 실제로 세상을 더욱 정의롭고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기울이는 인간의 모든 노력에서 하느님의 징표를 알아보도록 도와준다. 그것은 역사 안에 있는 시대의 징표를 알아내는 일을 북돋워 준다. 그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불의에 희생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투신하도록 촉구한다. 정의와 변혁을 위한 투쟁은 복음화의 본질적인 요소이다.”(건의안 39항)

시노드 교부들은 또한 정치와 사회 활동에 종사하는 신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사람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행동의 증거를 보여 주기를 권고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에게 사회교리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을 강조한다.

한편 필자는 교황님 임석 하에 전체회의에서 발언할 기회를 얻어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실천력을 지니려면 사회교리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발언하였다. “하느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실천력을 지니려면 교회와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행동의 증거를 보여야 한다. 사람들은 지적인 논리보다는 거룩한 생활에 의해 더욱 감동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에 비추어 교회의 생활 방식과 재산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사회교리를 실천해야 한다. 예컨대, 상업적 계약을 할 때, 교회는 정의의 원리와 생활 임금과 정당한 근로조건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이 점에 관해 교회는 항상 만족할 만한 기록을 갖고 있지는 않다. 부디 이번 시노드를 통해 증거하는 교회에 알맞은 성경적 생활 방식이 확립되고 평신도들의 실천적 교육이 촉진되기를 기원한다.”

3. 성경은 인간의 말이며 동시에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하느님의 말씀을 표현한 인간의 말의 배경이 되는 문화와 역사를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역사는 또한 하느님의 행동이라는 차원을 지닌다. 이에 이번 시노드에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직접 발언에 나서 성경의 신적 차원을 올바로 고려한 성경 해석 방법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들을 제시하셨다. 교황님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계시현장(12항)을 토대로 성경 본문들의 뜻을 올바로 알아내기 위해서는 1)성경 전체의 일체성을 고려하여 본문을 해석할 것, 2)전체 교회의 살아 있는 전통을 고려할 것, 3)신앙의 유비를 고려할 것을 강조하셨다.

교황님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역사적·비평적 방법은 성경이 신화가 아니라 참된 역사라는 점을 알도록 도와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위에서 제시한 원칙들을 지키지 않을 때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셨다. 교황님은 그러한 위험으로 첫째, 성경은 단지 과거에 대해서만 말하는 하나의 역사책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점, 둘째, 신앙에

제 12차 주교 시노드

관한 해석학이 자취를 감추게 되면 그 자리를 세속주의적, 실증주의적 해석학이 차지하게 되어 결국 모든 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축소시키고 신적 요소들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해석이 자리 잡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셨다. 교황님은 현재 독일의 주류 해석학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님의 성체성사 제정을 부정하는 것을 그 예로 든다. 따라서 교황님은 성경 해석학과 신학을 따로 떼어 놓는 이원론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면서 성경 해석에 바탕을 두지 않은 신학은 근본이 없는 것이며 신학적이지 않은 성경 해석도 근본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교황님은 이어 미래의 성경해석학자들의 양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셨다. 교황님의 이러한 발언은 건의안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건의안 25, 26, 27, 28항).

대 언어로 번역하는 일에 종사할 사람들에게 적절한 성경 언어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건의안 33항)

이번 시노드는 하느님 말씀과 창조 질서 보전에 관해서도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시노드는 모든 인간과 모든 사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도록 불리었다고 전제하며 다음과 같이 견의한다. “불행히도 우리 시대의 인간은 하느님께서 주신 자신의 거처인 세상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성을 잃어버렸다. 따라서 그 말씀의 모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 말씀의 재발견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을 창조물로 존중하지 않는 현대인의 모든 행동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 성경과 살아 있는 교회의 성전에서 중인된 하느님의



이번 시노드는 신자들의 성경 교육 또한 중요하게 다루었다. “성경 사랑은 신자 생활 전체에 가득히 스며드는 성령의 은총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물을 제대로 알도록 양성해야 한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요한 4,10)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평신도들과 말씀 선교사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생활하며 선포하는 일을 배우는 교육 센터를 모든 문화 지역에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다양한 필요에 따라 성경연구전문기관들을 설립하여 성경 해석학자들이 자신들의 사명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확고한 신학적 이해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신학교나 대학들 같은 기존 기관들을 재검토하거나 강화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끝으로 성경을 다양한 현

말씀을 받아들이면 사물을 새로운 방법으로 보게 되어 진정한 생태론을 촉진하게 되는 바, 이는 곧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순명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사목 활동에서 피조물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육화한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의식을 계발하기를 바란다.”(건의안 54항)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한홍순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 23차 총회

이 글은 지난 11월 로마에서 열린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 제23차 총회에 참석한 한홍순 회장이 회의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로마에서 열린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 제23차 총회는 이번에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37명의 위원과 20명의 자문 위원이 함께 모인 첫 회의였다. 이들의 임기는 5년이며 위원은 인류복음화성 장관 이반 디아스 추기경을 비롯한 추기경 9명과 대주교 3명, 평신도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문위원은 폴란드 주교회의 의장 요제프 미할리 대주교를 비롯한 대주교와 주교 4명, 신부 6명, 네오까테쿠메나토 창시자 키코 아르구엘로, 싼트에제디오 공동체 창립자 안드레아 리카르디 교수 등 평신도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 중 아시아인으로는 한국, 필리핀, 홍콩(중국), 인도에서 한 명씩 활동하게 된다.

이번 총회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8년 12월 30일자로 발표한 문헌인 「평신도 그리스도인」 20주년을 기념하여 「평신도 그리스도인」 20년 이후: 기억, 발전,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다루었다.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1987년에 “교회와 세상 안에서의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을 주제로 하여 개최된 제7차 세계 주교 시노드의 후속 교황권고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가톨릭 평신도 대현장이라고 할 만한 문헌이다. 이 문헌의 목적은 “모든 평신도가 한 집단으로서든 개인으로서든 교회의 친교와 사명 안에서 받은 은사와 책임에 대한 더욱더 깊은 의식을 일깨우고 증진하고자 하는 것”(「평신도 그리스도인」, 2항)인 만큼, 이번 총회는 그 후 20년 동안 평신도들에 대한 성찰에는 어떠한 발전이 있었으며 앞으로 평신도들이 자신의 소명을 실현하려면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다루었다.

이번 총회의 첫 날은 네 가지 소주제, 즉, 평신도의 신원, 평신도 교육, 평신도로서의 삶, 그리고 평신도 단체 사도직의 새 시대에 대한 발표와 토론에 할애되었고 둘째 날은 공적 생활에 있어

서의 평신도의 책임 문제를 생명과 가정, 노동과 경제, 교육과 문화, 사회 홍보, 정치, 국제질서로 분야를 나누어 검토한 원탁 토론을 진행하였고, 셋째 날에는 평신도 평의회의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평신도 그리스도인」의 원천인 제7차 세계 주교 시노드에 옵서버로 참석한 바 있는 필자에게는 이번 총회가 21년 전의 그 역사적인 세계 주교 시노드에 대한 소중한 기억을 되살려주는 뜻있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총회를 개회하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열등의식을 떨쳐 버리고 세상에서 용감한 중인이 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역설한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 의장 스타니스와프 리우코 추기경의 연설은 「평신도 그리스도인」 이후 20년 동안 교회와 세상에서 평신도들에게 제기된 도전과 이에 대한 평신도들의 응전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매우 인상적인 것이었다.

리우코 추기경은 서방 사회가 “상대주의의 독재”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리스도인들, 특히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공격을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으로 통하게 하는 새로운 반그리스도교적 태도를 비난하였다. 추기경은 오늘날 “복음에 따라 살며 행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방의 매우 자유로운 사회에서 조차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리스도교 전통을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 내려는 생각이 힘을 얻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추기경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그 수가 소수라고 하는 데 있지 않고 스스로 용기가 없어서 자신을 사회와 관계없는 주변으로 물러나 있게 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편안히 내버려 두게 하려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지적하였다.

리우코 추기경은 “그리스인들이 그릇된 열등의식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의 용감한 중인들이 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때야 말

로 “평신도의 시대”이며 평신도들은 정치, 생명과 가정, 노동과 경제, 교육과 젊은이 양성 등 다양한 공적 생활 분야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번 총회 첫날 발제 강연에 나선 베니스 총주교인 안젤로 스콜라 추기경은 “친교의 교회론에 비춰 본 평신도 신학: 평신도 신원”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이 강연에서 추기경은 교회 안에서 평신도 소명은 성직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일련의 기능들이 아니라 모든 다른 인간 활동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고 역설하였다. “교회는 추상적으로 정의할 수 없으며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끊임없이 파견되는 세상과의 관계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 교회가 별개의 현실이라고 보는 위험한 발상을 극복되어야 한다.”

스콜라 추기경은 이어 평신도 차원은 교회에 본질적인 것이며, 평신도들은 “각기 개별 교회에서 자신들이 주역으로 활동하는 역사적 상황 앞에서 자기 고유의 평신도 특성을 살도록 불리었다”고 말하였다. 추기경은 특히 평신도들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였다. “평신도들은 점진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도록 불리었다. 이것은 개인 생활에서나 공동체 생활에서나 이들을 기다리는 굉장한 임무이다. 이 임무는 용기와 창의력을 갖고 떠맡아야 하는 것이다.”





스콜라 초기경은 “교회는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용기를 갖고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언하며 전진해 나가는 평신도 차원을 살아간다”고 말하며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의 기능들에 대해 법적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평신도 신학”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둘째 날 공적 생활에 있어서 평신도의 책임 문제를 검토한 원탁 토론에서는 필자가 노동과 경제 분야에 대한 주제 발표를 맡았다. 필자는 이 발표에서 「평신도 그리스도인」 이후 20년 동안 일어난 세계 경제의 변화로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와 세계화 현상의 가속화를 들고 이러한 변화는 세계 경제 질서의 개혁을 시급히 요청하는 만큼 평신도들은 각자 자기가 처한 생활 현장과 전문 분야에서 교회의 사회 교리에 따라 바로 지금 여기서 개혁의 일꾼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날 오전 교황님께서는 위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새 세대 가톨릭 신자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고백한 신앙과 일관되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확고한 도덕성, 교양 있는 판단 능력, 전문성, 공동선을 위한 봉사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을 복음적으로 양성하고 이들과 사목적으로 함께하는 일이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역설하셨다. 교황님께서는 또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결혼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와 그 모든 차원에서 친교와 협력을 이룬 가운데 서로 풍요로워지도록 불리었다.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의식과 용기를 갖고 막중한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교회는 여성의 복음 선교 참여를 높이 평가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셋째 날 오후에는 평신도 평의회의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평신도 평의회는 특히 교황님께서 이 날 오전 위원들을 접견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에 따라 가톨릭 신자 정치인 양성 문제를 차기 총회에서 주제로 다루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평의회에 새로 생긴 스포츠 사도직 전담 부서 중심으로 바오로 해를 기념하여 2009년 5, 6월 경 바오로 사도의 선교 여정을 따라가는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며 그리스, 말타, 남 이태리를 중심으로 참가자를 모을 예정이다. 2009년 가을에는 “교회와 스포츠”를 주제로 한 국제 세미나가 열린다. 2010년에는 “사랑에 대한 교육”을 주제로 제10차 국제 젊은이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한홍순